

한국농촌진흥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노·사 상생의 철학으로 농어업인에 신뢰받는 직장문화 선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출퇴근 선택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등 고용환경 개선 앞장 수상태양광사업 수익으로 농어업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일반현황〉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3개시와 1개면(별교)의 광범위한 지역이 연접한 4,738ha의 수해면적과 158개소(저수지 48, 양수장 23, 배수장 10, 관정 13, 방조제 9개)의 농업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1개 시·군을 관리하는 다른 지사와 달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3개시와 보성군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직원들은 3배 이상 역량을 발휘하여야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노사가 함께 배려와 격려의 한마음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며 본연의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금년 목표 67억3800만원중 공공임대 농지매입사업으로 3억2300만원, 농지연금사업은 19건에 3억2700만원, 경영회생지원사업은 18억68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총 33억3100만원, 49%를 추진하였고 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입한 농지를 다시 해당농가에 장기 임대 후 판매할 수 있어 수해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9농가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다.

〈생산지반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순천광양여수지사는 현재 생산지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224억을 투입하여 대통령 저수지 1개소를 확대하여 저수량 26만톤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시행중에 있다.

또한 여수시 죽포리에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1개소를 신설하는 침수예방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도 신규착수지구로 2개 지구(해동1, 신소)에 사업비 280억을 투입하여 배수개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은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9개 권역에 747억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로부터 수탁 받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3개 권역에 75억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농지은행사업〉
순천광양여수지사는 농지은행 및

농지은행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9농가에 3억27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은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9개 권역에 747억을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로부터 수탁 받아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3개 권역에 75억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3시1군 지자체(순천시,광양시,여수시, 보성군일부)의 광범위한 수해면적(4,738ha)과 158개소의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관할지역의 특성상 3개 지자체(순천시,광양시,여수시)의 수해구역이 모두 해안가를 인접하고 있어 재난재해에 취약한 유지관리 약조건 속에 풍수해 대비 배수시설을 사전정비 완료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사업 수익으로 농어업인 서비스 향상〉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2018년 주요업무중 최우선 과제로 정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및 방조제 수면에 수상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인 20%로 확대하는 국정 과제 수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내 총 11개 저수지에 13MW의 사업 계획을 본사에 제출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청렴 생활화와 노사상생협력〉
순천광양여수지사 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청렴과 신뢰이다. 김신환 순천광양여수지사장은 취임식에서 첫째도 청렴, 둘째도 청렴, 셋째도 청렴을 강조했다.

청렴에 취약한 계약업무를 위해 지침에 의거 일정금액이상은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수익계약이 가능한 계약은 정부공정정책에 따라 여성기업,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과 실시하므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청렴을 생활화 하고 있는 지사, 신뢰와 배려로 노사가 상생하는 지사-하늘(순천)과 태양(광양)과 물(여수)지사이다.

최남규 기자

“공정한 업무와 청렴으로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김신환 지사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 우리 지사 인원은 휴직자를 제외하고 총 39명입니다. 이 중 여성이 11명으로써 약 30%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성들의 근무환경이 불편 없도록 여직원 휴게실 운영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출퇴근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환경에서는 모든 결재를 100% 전자결재로 대체하여 대면결재에 대한 부담감을 제로화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어떠한가요
- 노조지부장님과는 2005년부터 3년간 고흥에서 근무하면서 산악회 회장, 총무를 같이하였던 인연으로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부정회시 노조지부장이 참여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인력배치에서부터 업무분장까지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수상태양광발전사업입니다. 금년 2월 우리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한 최규성 사장님은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수지나 간척지 조류지 등을 활용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유일한 창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37번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지사에서도 저수지 11개소에 13MW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수시에 있는 5개 저수지에 4.5MW의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고 현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 공정한 업무와 청렴입니다. 특단적인 의사결정은 투명하지 못하고 자칫 부당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열린 의사결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에서 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불신의 벽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순천·광양·여수시에 거주하시는 존경하는 8,100여명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인이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존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상 농업인의 사소한 애로사항도 경청하여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이 생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함께 나가길 기원드리며 농업인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올 하반기 역점추진 시책은.

“노사 화합으로 소통경영에 적극 동참한다”

이금중 노조지부장

▶월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 "가마를 타려면 가마꾼의 어깨를 먼저 생각하라"는 옛 말이 있다.

서로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대화하면 풀리지 않은 일이 없고 해결 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 원칙과 소신으로 조합원들의 신뢰 속에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노동조합을 이끌고자 노사간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 노사가 함께 농지은행 사업을 홍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k-리코 관리는 빠지지 않는 연례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업무공간을 벗어나 노사 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통과 배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연말 노사합의를 행사를 개최하여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시는 조합운영시 잘 반영되고 있다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조합원 의사를 청취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는 관계로 사소한 것들까지도 집행부에서 파악이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취합된 의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있다.

▶노사간 소통과 배려는 원만한가?
- 노사간의 소통은 경쟁력의 결정적 요인이며 그 바탕은 진실성 있는 대화뿐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진실하고 솔직하게 ~배려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으로 ~ 가장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저 두 단어인 대화와 배려로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매분기별 분임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9월중 KRC노사파트너쉽 교육을 지사장(사측)과 함께 참석하여 발전적 노사관계가 보다 더 깊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활동계획을 소개한다면?
- 노동조합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투명해야 단결력이 더욱 결속된다. 그 무엇보다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열린세상을 향해 진전하며 모든 판단기준을 조합원에게 맞추고 조합원의 권익을 확대 증진 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일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써가 반영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미력하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조합원 의견취합은 잘 되고 있으며, 취합된 의

최남규 기자